

경북여성지도자 신정순 전도사의 삶과 신앙에 대한 생애사(life history) 연구

이현철 교수(고신대학교)¹⁾

요약

본 연구는 고신의 경북여성지도자로서 신정순 전도사의 생애를 질적연구방법 중 생애사(life history) 접근을 통해 탐색해보았다. 개혁주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신정순 전도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고신 신앙의 전형(model)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다음세대와 교회 구성원들에게 고신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신정순 전도사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그녀의 출생과 유년기 그리고 가정의 신앙적 환경, 신여성으로서의 삶, 복음전도자로서의 삶, 서문교회에서의 전도사 사역과 제명, 대구서문로교회의 설립과 사역, 경북 여전도회 연합회 및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사역, 독신의 삶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신정순, 경북지역,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고신정신, 개혁주의, 서문로교회, 생애사, 질적연구

I. 서론 : 신앙의 태산(泰山)들이 그리운 시대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교단의 특징이 무엇인지요?”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와 자유주의 신학 앞에서 오직 성경,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전통,
그리고 생활의 순결과 순교를 추구한 교단이며,
지금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특징입니다.”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 좀 더 생생한 어떤.....
모델과 같은 삶과 사역의 모습은 없을까요?”
-학부 수업 중 학생과의 대화

위의 인용문은 지난 어느 학부 수업의 모습이다. 고신 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사역자와 연구자와의 대화 내용인데 그는 신학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원 MDiv 과정으로 진학을 할지 아니면 타 교단으로 진학 할지 고민 중에 있는 신실한 학생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그 학생과 대화를 하면서 질문의 본질적인 이유가 자신이 고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현재 교단의 고유한 정체성,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현장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개혁과 신학에 바탕을 둔 고신 정신이 적용되거나 기능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한 의식과 사명이 없이 자신이 고신의 신학대학원으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질문을 하였던 것이다.

그 학생의 문제의식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교단과 교회 현장의 경우 개혁주의의 건강한 실천보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검증되지 못한 왜곡된 비정통적인 신학 사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고신 신앙의 색채가 희석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시사하는 것이다(허순길, 1996; 2011).

참된 고신의 신앙은 진정한 회개 운동, 하나님 앞에서의 코담테오 정신, 세속적 가치와 성공에 대한 자기부정,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에 충실한 칼빈주의 신앙 추구, 자기와의 싸움과 불의와의 싸움을 바탕으로 한 의를 위한 투쟁과 개혁, 개혁주의 교회 건설로 요약할 수 있는데(정주채, 2011), 그러한 정신을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감당하였던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은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음세대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로 최근 한국 교회는 참된 신앙의 본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며, 순수하고 신실하게 사역과 삶을 감당하는 신앙 인물들이 아이러니 하게도 희귀한 시점이며, 우리 교단은 더욱더 그러하다. 이는 다음세대들에게 그들의 모델로서 실제적인 신앙의 선배 그리고 그들에게 조언하고, 올바른 신앙적 길을 제시할 멘토들의 부재를 의미한다.

또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내 실추된 교회의 위상과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교회 구성원들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교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교회를 향한 긍정적인 사회적 담론의 형성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교회 구성원들은 목회자들과 여러 교계 리더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인해 상처받고, 교회다운 교회,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찾고자 ‘고통스러운 수행 이동’ 중에 있다. 정리한다면 현재 올바른 신앙모델의 부재로 말미암아 다음세대와 교회 구성원들은 ‘신앙의 태산(泰山)들이 그리운 시대’를 걷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고신의 경북여성지도자로서 신정순 전도사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우리 고신 신앙의 실제적이고, 생생한 특징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녹여 내고 있어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수준과 존재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고신교단이 한국의 여타교단과 같이 외적성장을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생명을 내어놓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진리를 고수하고,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켜온 것은 세상의 평가와 무관하게 위대한 일이다(전광식, 2003). 그리고 이것이 교단 내에서 많은 신앙적인 인물들을 배출해 낸 것에서 더욱 의미가 있으며, 그들을 더욱 발굴하고 다음세대들에게 실제적인 우리 신앙의 모델로서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북여성지도자로서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신실하게 살았던 신정순 전도사의 생애를 질적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 중 생애사(life history)적인 접근을 통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고신 신앙의 전형(model)을 가지고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그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고신 신앙의 전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생한 측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교단의 특징이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이현철 고신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 교수 Office: 051)990-2510 Email: hyunchul@kosin.ac.kr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정순 전도사의 생애를 탐색하기 위하여 생애사(life history)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생애사의 이야기자료는 연구참여자의 과거사에 대한 기억과 반성으로서 연구자의 해석과정을 거쳐 진행되며(Atkinson, 1998), 연구대상자가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되돌아보며 현재의 해석을 담고 있는지에 집중한다(Denzin, 1989).

일반적으로 생애사의 특징으로 이야기(narrative), 주관성(subjective), 시간성(temporality)을 지적하면서 생애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관성과 시간성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며, 개인의 회상을 통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자의 삶에 대해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와 해석을 포함한다(유철인,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회고를 중심으로 사실성을 바탕으로 두면서, 심층면담에서는 기술성을 최대한 살린 생애사 연구를 통해 신정순 전도사의 생애 가운데 고신 정신과 신앙이 어떻게 실천되고 나타났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대구 서문로교회의 은퇴 전도사(1994년 12월 25일 은퇴)로서 2014년 4월 현재에도 서문로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수요일 노인대학, 여전도회에서의 원로 사역을 헌신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그녀가 활동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 모두가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관찰의 내용은 그녀가 평소 어떻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성도들과의 의사소통과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사역 전반에 대해서 관찰하였다. 심층면담은 주요 정보 제공자인 신정순 전도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비구조적인 면담 형식으로 그녀의 생각과 의견들을 가능하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비구조적인 면담 과정은 특정 면담가이드를 통한 구조화된 면담 과정보다 연구자의 개입이 배제되며, 연구참여자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신정순 전도사의 '어투'와 '대구·경북지방 방언'을 활용한 특정한 용어들은 그대로 활용하여 연구의 현장감을 유지하였다. 이외에도 현재 서문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료 교역자, 친척들, 그리고 여전도회 회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신정순 전도사의 생애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들과 사건에 대한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경우, Zilber(1998)의 생애사 자료 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통합적 형태(holistic-form) 분석과 담론(discourse) 분석이 적용되었다. 통합적 형태의 경우 생애사의 내용 측면보다 각 생애사의 전체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며, 담론분석은 연구참여자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조직 원리에 초점을 두고 서사 구조를 탐색하는 것이다(우지만·백종수, 2011). 이러한 방식의 경우 신정순 전도사의 생애 속 고신의 신앙과 그의 사역을 확인 및 해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활용되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방대한 삶에 대한 정보를 구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해석적 틀을 제공해주었다.

3. 연구의 타당도(Validity)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과정의 삼각화(Triangulation)와 생애사 전문가 협의의 진행하였다. 전문적이었지만 연구자의 경우 도출된 연구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그의 동료 및 친척을 통한 확인 과정과 연구참여자인 신정순 전도사로부터도 직접 그 내용의 오류와 진실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있으며 생애사 연구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 연구자 3명으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자료 분석방법과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쳤으며, 비판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다차원적인 검증을 통해 생애사 분석 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II. 신정순 전도사의 생애사 분석

1. 1924년 3월 13일 출생과 유년기: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던 11세 소녀”

신정순 전도사는 아버지(신현경), 어머니(이흥달), 2명의 오빠, 2명의 언니, 그리고 4명의 남동생의 9남매 사이에서 다섯째로 1924년 3월 13일 대구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선교사로부터 서울에서 복음을 받으시고 배재학당에서 공부를 하셨으며, 의과대학 공부를 진행하던 중 신경쇠약으로 공부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후 경남 창녕으로 오게 되었으며 창녕 유어면에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통해 당시 ‘창녕 유어교회’ 개척과 설립으로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여 ‘영수’²⁾로서 피택도 받았다. 또한 그 시대 지식인으로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들의 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실제로 대구로 생활의 터전을 옮기게 된 주된 이유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였다. 신정순 전도사의 경우 대구로 가족이 이사 온 뒤 출생하였다.

연구원: 그럼 아버지가 그 당시 의과대학 공부를 하셨네요. 대단하시네요.

신정순 전도사: 그렇지. 그런데 아버지가 일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가 일기에 그렇게 적어둔 것을 보고 내가 알게 되었지..... 아버지가 외동 아들이었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그거(열심히) 하게 하셨어. 아침에 찬물 목욕을 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랬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데. 그때 창녕 유어면에 계셨는데 그때 유어 교회라고.....그 교회에 설립자 태이라. 그러가지고 몇 사람이.....독실하게 믿으시고, 대구에 나오셔서 기도도를 하시고 그러셨지..... 내가 한번은 달성공원에 아버지랑 갔는데 그때도 아침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그러셨어.....

2) 여러 사람을 지도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한국 초창기 장로교회에서 조직이 완전하지 못한 교회를 인도하던 직분이다(이중구, 2002).

대구로 삶의 터전을 옮겼지만 신정순 전도사의 부모와 가정의 신앙은 '대구 서문교회'에서 변함 없이 이어져왔으며, 부모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생활을 하며 유년시절을 보내었다.

신정순 전도사는 부모의 교육열과 지원을 통해 경북지역 최고의 명문 학교였던 '대구여자고등보통학교(대구경북여자고등학교의 전신)'까지 졸업할 수 있었다. 다른 형제들의 경우도 대부분이 그 시대 명문 고등학교인 '경북고등학교', '계성고등학교', '대구경북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사회 영역의 지도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또한 그녀가 성장하였던 시기는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11세 때 있었던 그녀의 신사 참배 반대는 유년 시절부터 그녀가 신앙과 삶에 있어 분명하고도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 중의 하나이다.

신정순 전도사: 박복달 권사 어머니(김길문 여사)³⁾께서 완전히 신실하게 그거 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거든.....일제시대 때 정순아! 정순아! 신사참배는 나쁜 것이니깐 하지말라카는거 아이기. 그거하면 지옥 간다 카는기라. 그래 가지고 11살 때, 국민학교 4학년때 신사에 가서 나도 한번 '뽀뽀하게' 서가지고 있었어.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볼 줄 알았는데 제일 앞에 교장이 말이다. 반마다 하고 나가고 반마다 하고 나가고 이러거든. 딱 얼굴이 교장하고 마주치는거 아이기. 교장이 내한테 와서 딱 쳐다보면서 "니 절 안했지" 카는기라 그래가지고 내가 "예"라고 했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어 못하라고 말 못하고, 내 친구 박봉현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이가 하하하.....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몇 번이나 불려갔다. 그때는 일제 말엽이 아니고 한참 때니깐.....

이러한 유년 시절의 신앙에 대한 열심과 순수한 모습은 그녀의 전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즉, 서문교회에서의 제명, 여전도회 및 다양한 교회 사역 등에서 그녀가 행동을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있어 그러하였다. 다시 말하면 신정순 전도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분별과 판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생애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 특별히 그녀가 살아온 거친 역사적·시대적 상황들이 주는 신앙적 시련들 앞에서 수동적으로 순응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적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행동하고 선택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신정순 전도사가 유년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강직한 모습이었으며, 신정순 전도사만의 순수하면서 끈은 성품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3) 박복달 권사의 어머니 김길문 여사의 경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자녀들에게 순결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이상규, 2009).

2. 청년기, 직장 생활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르심: “신여성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

가. 신여성으로서의 삶: “교사, 신정순”

여성 인텔리로서의 삶을 살았던 당시 신정순 전도사는 보통학교를 거치고 지금의 경북여고의 전신인 대구여자고등보통학교도 졸업한 수재였다. 경북지역 전체 3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하고, 경북 유일의 공립학교였던 학교에 우수하게 입학하고 졸업을 하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성으로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선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다.

실제 신정순 전도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인이 경영하던 철물기계 제작 공장(대구 중구 소재)에 취업하여 설계도를 작성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⁴⁾

신정순 전도사: 그 회사에서 내가 한 일은 직원들에게 기계 설계도를 그려주는 일을 했고, 내가 설계도를 똑같이 그려주면 직원들은 그것을 보고 기계를 제작하는 과정이었다.....한번은 내가 설계도를 틀리게 그렸다가(그렸다가 아니기) 잘 못 기리서(그러서) 그날 제작된 공구들이 모두 치수가 잘 못되어서 당황했지. 그런데 일본인 사장은 그럴 수 있다고 했고 이번 경험 다음에는 괜찮게 해줄꺼다라고 하더라고 하하하. 아마 내가 그곳에 간 이유는 설계도 그리는 것은 중요하고 똑똑하게 공부한 사람이 해야한다고 일본인이 생각했던 것 같애.....

설계도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그녀는 큰 어려움이 없이 회사생활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최고의 배려를 하였다.

신정순 전도사: 일본인이 자기 댁에는 최고의 학교를 나온 사람을 취업시킨다고.....내가 공부도 잘했지. 수학은 참고서 없이 공부했으니깐.....하여튼 일본 사장이 내하고 내 친구 둘이를 취업시킨다고 웃도 양장으로 사주고.....상여금도 얼마나 많이 주고.....얼마나 대우를 해주는데.....회사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도 일찍 안 갔다고 다른 직원들 처럼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지 못한다고 했지. 그랬더니 사장은 그러면 오전에 나오라고 했고, 내하고 내 친구 둘이는 다른 사람들 보다 늦게 나가고, 퇴근은 일찍했어. 하는 일이 달랐지만 설계도 똑같이 2-3장 정도 기리면(그러면) 퇴근이니깐.....세상에 이걸 기리고 월급을 받다니 하하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아이가.....

4) 이는 이상규(2009)의 자료를 포함하여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신정순 전도사의 생애 사건인데, 그녀는 이번 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며 부끄러운 듯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는 연구자와의 깊은 라포(rapport)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녀는 건강상의 이유로 높은 월급과 안정된 회사 생활을 금방 그만두게 되는데, 당시 그녀는 폐기권이 좋지 못하여 쉬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자신이 공부한 것을 더 의미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두 번째 직장 선택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일본인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져서 교사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정순 전도사: 내가 그냥 집에는 것이 성질에 맞지 않고, 선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런데 도회외지에서는 ‘탁탁’ 규율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내가 힘들 것 같고.....내가 몸이 약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때 그 형(언니), 와 내가 경북여고 다녔던 형이었다고 안카드나 그 형(언니)의 친구(경북여고 동기) 남편이 장학사였어. 한국 장학사는 그 사람 한명 뿐이었어.....고령 성산국민학교에 그때는 성산보통학교였지.....선생 시험을 치는데 수창학교에서.....1종과 2종 시험이 있는데 사범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2종.....

이후 신정순 전도사는 고령 성산보통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교직 생활은 그녀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 공개수업과 활동에 장학사와 학교장 그리고 동료 교사들로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실제 담당 장학사로 부서는 시내의 학교로 이동 권유도 받을 정도였다.

신정순 전도사: 국어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하는데 있었어. 뒤에 장학사들하고 뭐 이런사람들 다 있고.....뭐 그런데 나는 그런게 겁이 안나는기라. 담대하게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고 답을 시키고 하하하. 그랬더니 마치고 장학사 ‘시내 학교’오면 안되겠냐고, 막 그카는기라.....나는 몸이 안좋아서 안된다고 그리고, 딴 사람들은 어떻게하면 시내학교 갈라고 카는데.....하하하

신정순 전도사의 성공적인 교직생활은 이후 신정순 전도사의 어린이 사역과 설교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가에 대한 전문적 수준의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들을 익히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 신정순 전도사는 해방되기 직전까지 약 3년간의 교직생활을 하였으며, 강력한 은혜의 체험이 있는 후 교직생활을 그만두게 된다.

나. 복음전도자로서의 삶: “누구를 만나든지.....”

신정순 전도사는 자신의 신앙적 멘토이자 평생의 동역자인 ‘박복달 권사’⁵⁾를 통해 삼위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뜨거운 회개, 눈물의 기도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신정순 전도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사회적 신분이 보장된 신여성으로서의 삶에서 복음전파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정순 전도사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당시 박복달, 우태숙 선생 등 여러 여성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났다. 이는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로서 그들을 교회를 위한 여성 사역자들로 쓰시고자 함이었다.

신정순 전도사: 해방되는 해에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 박복달 권사님은 해방되기 20일전에 은혜를 받으시고.....박복달 권사님과 우리집에 한 100미터 정도 거리라. 인교동(대구 중구)에.....어쨌든 해방되는 그 무렵 내가 박복달 권사 집에 갔더니 내 보고 하는 말이
“정순아 우리 예수 바로 믿어야 한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바로 믿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 죄를 회개하고 믿어야” 카는기라.....최일출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피하려고 강원도로 산으로 다니신 분이 ‘우태숙 선생’⁶⁾집에 오셨는거라.....그때 박복달 권사님도 은혜를 받으신거라. 그래서 날보고 회개하라고 막 카시는기라.....처음에는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기라.....하하하 나중에 밤도 못먹겠고 미치겠는기라.....우태숙 선생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박복달 권사가 날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하고 하는데, ‘탁’ 터지면서 ‘뿔뿔’ 돌 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주님을 붙들고 얼마나 회개하는데 내 죄가 막 떠오르는데.....얼마나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하고.....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며 평안을 주시는데 그...그...기쁨이 은혜가 말도 다 못하겠어. 그때는 기도하면 하늘과 내 사이에 막이 탁 터지는 것 같은기라! 주고받고.....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밥도 안먹어도 되는거라. 밥을 뱉말라고 먹어 참말로. 좋으니까. 저절로 밥이 먹여지질 않는기라. 오로지 그때 부터는 주님만 기쁘게 하고, 주님만을 위해 어떻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기라

5) 신정순 전도사는 어린 시절부터 박복달 권사와 각별한 사이였다. 박복달 권사(혹은 박복달 선생)는 명망성 선생, 조수옥 권사 등과 함께 고신의 여성 인맥을 이끌었고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경북노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여성 지도자이다. 박복달 권사는 1993년 9월 27일 소천 할 때 까지 평생을 고려과 운동에 전념하였으며(면오현, 2003), 박복달 권사의 생애와 관련하여 권오현(2003).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한 생애: 박복달 권사」 고신신학 5. 52-64.를 참고하기 바란다.

6) 우태숙 선생은 해방과 6.25동란의 사회적 격변기에 경상남-북 지방을 중심으로 회개와 부흥운동을 일으킨 여성 부흥사이다. 우태숙 선생의 생애와 관련하여 김성수(2003).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부흥사 우태숙 선생님: 경남북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신앙의 여장부」 고신신학 5. 94-127.를 참고하기 바란다.

신정순 전도사: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차안에서 만나든지, 길을 가다 만나든지, 누구라도 지옥갈까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기라 그 사람 지옥 간다 생각하니 기가 차는기라.....

신정도 전도사는 인용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하였다. 그 이후로 그녀의 삶은 온전히 복음과 함께 복음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신정순 전도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강력하게 복음 전도자/전파자로서의 삶을 실천하게 된다.

또한 당시에는 신정순 전도사가 대구 중구의 서문교회에 평신도로 출석하고 있었으며, 전술한 신정순 전도사를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그의 신앙생활을 더욱 열정적으로 이끌었다. 이는 주일학교 교사, 장년부 교사, 성가대 등과 같은 교회 봉사를 시작하게 하였으며, 서문교회에서의 활동과 사역은 점차 커져갔고 유년주일학교와 장년부 교사로서의 사역은 실제적인 부흥의 열매들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듬해 1946년 1월 박복달 권사와 함께 '대구고등성경학교'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이후에는 '부산 광복동 고려신학교'에서도 신학공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차 성경과 신학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과 사역자로서의 소양을 갖추어나가게 되었다.



[그림 1] 대구고등성경학교에서의 추억과 활동: 교회연합운동회에서의 우승
자료출처: 신정순 전도사 개인 소장

3. 서문교회에서의 전도사 사역과 제명: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전술하였듯이 신정순 전도사는 대구 중구의 서문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으며, 주일학교 교사, 장년부 교사, 성가대 등을 통해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때만 하여도 평신도 사역자로서 순

7) 다른 자료(이종구, 2002)에서는 '대구 동산성경학교'로 명명되고 있으나 연구자와 신정순 전도사와의 면담에서는 '대구 고등성경학교'로 명명하여 면담이 진행되었음을 밝혀둔다.

수하게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나 1950년 6.25 전쟁이 터진 그 해부터 서문교회 '청년 전도회' 전도사로 부임하여 전임사역자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신정순 전도사: 6.25가 터지고 사람들이 피난을 온다고 내려오는데 내가 막 불이 붙는거 아이가.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하는데.....답답해가지고 박복달 권사님 집에 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얘기할라고 갔잖아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오는기라. 한참을 기다리니깐 와서는 대뜸하는말이 “정순이 니 전도회 전도사로 부임하기로 명목사(명신홍 목사, 당시 서문교회 담임목사)와 얘기했다” 카는거 아이가 하하하 마....나는 입이 탁 붙어 버려대. 신학 공부도 내가 사역을 할라가는거 보다 공부를 하고 싶었고.....

서문교회 내부적으로는 박복달 권사와 신정순 전도사가 전도회 임원으로서 열심히 봉사하였으며, 실제 전도회도 부흥하여 청장년이 함께 모임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청년 전도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사역을 해보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그 담당 사역자로서 신정순 전도사가 추천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서문교회 내에서 박복달 권사와 신정순 전도사가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을 하였던가와 그들이 교회로부터 신임을 받는 청년들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역의 확대와 역동성은 교회 내 시기와 유무형적인 견제의 대상이 됨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신정순 전도사는 서문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내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어린 나이로서 어른들을 양육시키고, 목사님과 심방을 다니며 평신도 때와는 다른 차원의 사역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노방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럴 때마다 박복달 권사가 성경 구절을 통해 설득을 하고, 위로하고 가르침을 주었다고 한다.

전도사로서 8개월 정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신사참배 관련하여 고신교단이 축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서문교회 내에서 고려파 관련 인사들이 제명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신정순 전도사: 전도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에서 이러니깐 사람들이 미워하는기라. 사람들은 자들이(저 사람들이) 이단아이가 이라고 하는데 점점 부흥하는거라. 그때 박복달 권사님이 '조야교회'와 서울, 부산 등 각처에서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랬거든 참석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참 말할 수 없는 죄도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다.....그러니깐 한편에서는 좋아하고 한편에서는 미워하는기라. 그런데 총회적으로 고신 축을 미워하게 되고 잘라내게 되었거든. 한상동 목사님이 미움을 받고, 숫자가 저거(자기들이)가 많으니깐 어쩔 수 없는기라.....우리 고신측은 총대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그 결정은 대구에서 먼저 실행하기로 되었거든 그 실행이 서문교회에서 되었다 아이가.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고려파도 많이 없고.....그때 교회에서 우리를 많이 불렀어 그냥 돌아오면 안되겠느냐고 그때 우리는 신

사참배에 대해 그 결정이 옳은 것이냐고, 가결된 것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항의를 하고 해야지..... 그런데 당회에서는 ‘오병식 장로’⁸⁾ 한분만 ‘아니요’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제명한다고 결정했지.....

회개운동의 확산과 고려신학교의 설립은 일제시대에 배교하였던 교권주의들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교권주의자들은 고려과와 관련된 여러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하여 1951년 제36회 총회의 결의를 끌어내어 고신 측 경남노회를 축출하였다. 경북노회 제48회 노회에서 고려신학교 학생 추친을 금지하고, 이러한 움직임에 관련된 자들을 제명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서문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는데 당시 서문교회에는 고려과 관련 인사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신정순 전도사는 서문교회에서 제명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진지하였으며, 그대에 대한 회고 중에서도 결연한 의지를 표현해주었다. 서문교회에서 제명당한 인물로는 김주오, 박복달, 신정순, 서옥련, 김계초, 서경에 등이었으며, 신사참배와 관련하여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몇 번이나 교회로부터 불립을 받았지만 결국은 서문교회 당회로부터 1951년 8월 19일 주일 공식적으로 제명을 당하였다(이상규, 2009). 서문교회 당회의 제명이 교회에 선언된 이후 제명자들 그리고 오병식 장로와 당시 장로 장립식을 앞두고 있었던 최만술 집사는 다른 고려파 지지자들과 더불어 교회설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대구 서문로교회’의 출발이 되었다(신정순, 2001; 조성국, 2003 계인용).

4. 리더십의 발휘: “Servant Leadership”

가. 대구 서문로교회⁹⁾의 설립과 사역

1951년 8월 19일 서문교회에서 제명을 당하고, 1951년 8월 26일 대구시 서문로 1가 11번지에 마련된 예배처소에서 한상동 목사의 인도로 33명이 모여 새벽기도회를 드림으로서 고신과 경북노회 첫 번째 교회인 서문로교회가 시작되었다.¹⁰⁾

당시 제명 자들과 동료들은 서문로교회에 대한 오해, 조소 그리고 반대 속에서 초라하게 시작하

- 8) 오병식 장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고신과 운동을 시도했던 지도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경북노회 내 여러 교회들의 설립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다. 오병식 장로의 생애와 관련하여 조성국(2003) 「오병식 장로의 고신(고려)과 경건과 정신」. 고신신학 5. 34-50을 참고하기 바란다.
- 9) 서문로교회(담임목사 강학근)는 개혁주의 신앙과 진리 파수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이 서문교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아 설립이 이루어졌으며, 대구·경북지방 고신의 모체교회로서 경북지역에 고신교회가 확장되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기독교보, 2013년 1월 2일 기사). 서문로교회는 1951년 9월 25일 오병식 목사가 초대교역자로, 신정순 전도사가 초대 전도사로 부임하였으며, 2014년 4월 현재는 강학근 목사(2000년 11월 9일 담임목사 부임, 2001년 3월 14일 위임)가 고신교단과 경북노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숭고한 선배들의 신앙유산을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다.
- 10) 당시 서문로교회의 경우, 김주오 목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는 5두락-보통 ‘마지기’로 표현되며, 1마지기 경우 약 200평이)으로 일천만원을 감당하고, 오중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일천만원을 마련하여 그 이전만원으로 공장을 매입하여 예배당으로 활용하였다(이상규, 2009). 이후 1960년 4월에 현재의 대구시 중구 서내동 8-1번지로 옮기게 되었으며, 당시 신탄사(悉達寺) 절을 구입하여 예배당으로 활용하였다(대구서문로교회, 1981).

였으나 그 시작은 고신 운동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후 서문로교회를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 하게 만들었다(류윤옥, 1981).



[그림 2] 대구서문로교회 설립위원¹¹⁾: 사진 아래 왼쪽에서 첫 번째 신정순 전도사
자료출처: 서문로 30년사 화보. p.16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신앙을 가진 서문로교회에서의 사역은 신정순 전도사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녀의 서문로교회에서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 당시 여러 동역자들은 굉장한 힘을 얻었으며, 이후 서문로교회가 신앙적으로 든든히 성장해나가는데 있어 신정순 전도사의 사역은 핵심적이었다.

11) 사진 위 왼쪽부터 김주오, 오병식, 최만술, 오상용, 손만윤, 문덕래, 이말순, 사진 아래 왼쪽부터 신정순, 김계초, 박복달, 오병세, 박윤선, 신경생, 박혜운



[그림 3] 신정순 전도사(사진의 오른쪽)와 대구 서문로교회 초기 예배당 모습
자료출처: 신정순 전도사 소장 자료



[그림 4] 서문로교회 초대교역자인 오병세 목사(사진의 오른쪽)와 신정순 전도사(사진 중앙)
자료출처: 연구자 촬영 자료(2014년 4월 22일)

한편 신정순 전도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고려신학교 공부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는데 서문로교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부터는 더욱 신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신정순 전도사: 해마다 내가 신학교 간다고 했거든. 그런데 박복달 권사하고 주위 사람들이 니 교회를 생각해레이. 니가 가면 교회는 어떻게되노 하하하

그래가지고 해마다 공부를 하러 못갔다 아이가. 그래도 나도 그때 젊을 때는 진짜로 교회를 두고 못가겠는기라.....하하하

인용문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신정순 전도사는 자신의 진로와 인생의 계획보다 교회의 섬김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실제로 그녀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교회를 섬기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문로교회에서의 사역은 신정순 전도사에게 있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이었다. 진리 사수를 위해 체명까지 당한 신앙인으로서 가장 최우선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 현장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자세와 모습은 그녀의 삶과 신앙의 전반적인 활동 속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신정순 전도사는 48세 때 더 이상 나이가 들면 공부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과 신학공부에 대한 강한 그리움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고려신학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51세(1974년)에 마치게 된다. 당시 그녀의 학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서문로교회 당회의 공식 허락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림 5] 고려신학대학 졸업 사진(둘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신정순 전도사)
자료출처: 신정순 전도사 소장 자료

또한 신정순 전도사의 사역의 특징은 섬김의 리더십인데 이후 경북 여전도회 및 전국 여전도회 사역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지만 교회의 목사님들, 동료 교역자들과 박복달 권사와 같은 중추적인 리더들을 항상 보필하고, 가능하면 말을 아끼며, 섬김의 본을 통해 그들의 사역을 더욱더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오랫동안 서문로교회의 전도사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서문로교회 교역자: 신정순 전도사님을 요약하면 겸손과 섬김이셨습니다. 항상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생각했고, 목사님들을 격정하셨습니니다..... 한 평생 서문로교회를 섬기시면서 오랫동안 변함없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바로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존경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위의 인용문 내용을 실제적으로 연구자도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직접 확인 할 있었는데 신정순 전도사는 1994년 12월 25일 은퇴이후¹²⁾에도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노인대학 및 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말씀을 전하며, 그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약 50명의 노인대학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함과 겸손함은 그녀의 리더십 특징을 잘 대변한다고 판단된다.

나. 경북 여전도회 연합회 및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사역

경북 여전도회 연합회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사역은 신정순 전도사의 섬김의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활동과 내용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박복달 권사는 경북 여전도회회장을 23년, 전국 여전도회회장을 10년, 서문로교회 여전도회 회장을 36년간 연임 하였다(권오현, 2003; 이상규, 2009). 이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권오현(2003)에 따르면 박복달 권사의 회생과 봉사 정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대안적 리더의 부재, 박복달 권사 중심의 고려파 여성 지도자들의 구성이 있기 때문이다.¹³⁾ 이 과정에서 신정순 전도사는 경북과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서기로 봉사하였으며, 박복달 권사의 사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업무와 실제적인 사역들을 담당하였다.

신정순 전도사: 우리는 서기가 업무들을 보고 그랬거든. 박복달 권사님이 회장으로서 일을 많이 하셨고.....꼼꼼히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내가 업무를 보고 했다. 그때는 뭐 이런저런 장부나 뭐.....뭐도 없을 때라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만들고.....

오랜 기간 동안 박복달 권사와 함께 경북 여전도회 및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를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여성들을 돌아보는 것은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신정순 전도사는 변함없이 그 사역을 섬김으로 감당하였으며, 이러한 그녀의 섬김을 통해 경북 여전도회 연합회 및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는 초기 안정적인 체제 구축을 할 수 있었으며, 교단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연합회의 왕성한 선교활동과 지역 교회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토대가 그 시기

12) 신정순 전도사는 1951년 9월 25일 부임하여 1994년 12월 25일까지 서문로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감당하였다(2011 대구서문로교회 요람 자료).

13) 실제 박복달 권사는 연합회장의 직이 다른 사람의 위에 서는 자리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을 회생하여 봉사하는 자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신앙에 전혀 모순이 없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봉사하였다. 그리고 전국연합회 회장은 유입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됨으로 10년만을 봉사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개정되자 직책을 물려주었다(권오현, 2003). 이는 신정순 전도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박복달 권사의 리더십과 오랜 활동에 대해 지지하였다.

에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신정순 전도사는 회장으로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게 되며, 이러한 신정순 전도사의 여전도회 연합회 내에서 섬김의 수고는 경북노회와 전국 여전도회로부터 많은 공로패와 감사패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자랑스러운 고신인상을 수상함으로 교단 차원에서도 신정순 전도사의 섬김과 봉사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서문로교회, 교단 및 여전도회, 후배 여성 지도자들의 기쁨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림 6] 1969년 경북 여전도회 연합회 활동
(사진의 중앙 셋째 줄에서 왼쪽으로 네 번째 신정순 전도사)
자료출처: 신정순 전도사 소장 자료

5. 독신의 삶: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신정순 전도사는 그가 그토록 따르며 존경하였던 선생이자 동역자였던 박복달 권사와 마찬가지로 평생을 독신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대구광역시 중구의 상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독신으로 살며, 서문로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녀의 독신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였던 그녀의 신앙적 표현이며,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려뒀음의 표현이다. 또한 박복달 권사의 삶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독신으로의 삶은 신정순 전도사 뿐만 아니라 김계초, 박봉현, 성은주 등 많은 여성 지도자 및 전도사들이 함께하였던 길이다.

서문로교회 권사: 전도사님의 삶은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예. 예수님이 좋아 한 평생을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 내가 부끄러워지고.....좀 그렇지요. 무엇이 전도사님의 삶에 힘이겠습니까. 인간적 그런것이 아니고예.....오직 예수님이 전도사님의 힘이시예.



[그림 7] 동역자로서의 박복달 권사(좌)와 신정순 전도사(우)
자료출처: 신정순 전도사 소장 자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것일까? 어느 정도로 주님이 좋았던 것일까? 이성간의 사랑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컸던 것일까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분명한 것은 인생이 줄 수 있는 즐거움, 안정감과 안위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이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IV. 결 론 : 고신정신의 실제적인 모델로서 신정순 전도사의 삶과 신앙

본 연구는 신정순 전도사의 생애를 질적연구방법 중 생애사(life history) 접근을 통해 탐색해보았다. 순수한 신앙과 그에 대한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신정순 전도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고신 신앙의 전형(model)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다음세대와 교회 구성원들에게 고신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2014년 4월 현재 91세(만90세)가 된 신정순 전도사의 전 생애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실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 살아 갈 것으로 다짐한 것이나, 평생을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묵묵히 섬기며 살아 온 것이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겼던 것이나, 평생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앞에서 감사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신정순 전도사의 이러한 삶이 우리 고신정신의 실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신정순 전도사와 같이 고신정신이 투철하고, 고신의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교단의

출발과 고신교회의 설립자가 아닌가. 그녀의 생각과 모든 것이 그야말로 ‘고신’인데 그녀의 삶이 위와 같다는 것은 고신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술한 바와 같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와 자유주의 신학 앞에서 오직 성경, 개혁신학과 전통, 그리고 생활의 순결과 순교를 추구하는 교단이다. 참으로 지금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특징이다. 이제는 이것을 무의미한 구호로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신정순 전도사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실천적으로 새겨야 할 때이다. 다음세대와 교회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다. 확신하건데 이는 분명 그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고, 한국 사회 내 실추된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2의 신정순 전도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고신 정신과 정체성이 살아있는 신앙적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며,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참고문헌

- 권오현(2003).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한 생애: 박복달 권사. 고신신학 5. 52-64.
- 김성수(2003).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부흥사 우태숙 선생님: 경남북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신앙의 여장부. 고신신학 5. 94-127.
- 대구서문로교회(1981). 교회섭립30주년 기념: 서문로 30년사 화보. 대구서문로교회.
- 대구서문로교회(2011). 2011 대구서문로교회 요람 자료. 대구서문로교회.
- 류윤옥(1981). 축사. 대구서문로교회 30년사 편찬회. 교회섭립30주년 기념: 서문로 30년사 화보. 대구서문로교회.
- 신정순(2001). 만세기의 신앙동지 오병세 목사. (오병세 목사 성역 50주년 기념문집 간행위원회 편) 새벽 이슬같은 은총의 날들. 현대출판사.
- 우지만·백종수(2011). 한 중등체육교사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8(2). 27-43.
- 유철인(1996).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사적 이야기의 주제와 서술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2). 397-419.
- 이상규(2009). 대구지방에서의 고신운동의 시원과 여성 지도자들(신정순의 1995년 '선배들의 발자취' 창년여전도회 회관 강연 녹취). 장로교회와 역사. 고려신학대학원.
- 이중구(2002). 백합동산 30년: 전국여전도회 연합회 3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전국여전회연합회.
- 전광식(2003). 파행과 세속화의 시대에 그리워지는 인물들. 고신신학 5. 8-10.
- 정주채(2011).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고려신학대학원). 고신역사와 정신 강의안. 고려신학대학원.
- 조성국(2003). 오병식 장로의 고신(고려)과 경건과 정신. 고신신학 5. 34-50.
- 허순길(1996).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고려신학대학원.
- 허순길(2011).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고려신학대학원). 고신역사와 정신 강의안. 고려신학대학원.
- 기독교보(2013). 서문로교회 60년사 발행. 2013년 1월2일 기사<http://www.knews.or.kr/news/>
- Atkinson, P.(1998). *The life story interview*.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Inc.
- Denzin, N. K.(1989). *Interpretive biography*. Nwebury Park, CA: Sage Publication.